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

20세기 한국불교 면면, 사진으로 읽다



백암산 백양사 대웅전

일제강점기 백양사 대웅전 모습. 사진 속 백양사 대웅전은 1917년 당시 주지로 재직하던 만암 스님이 건립한 것으로, 현재에도 법당 내 · 외부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만암 스님은 '이 뭣고'를 화두로 권하여 '이 뭣고 스님'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대표 불교 건축물 중 하나인 백양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의 화려한 양식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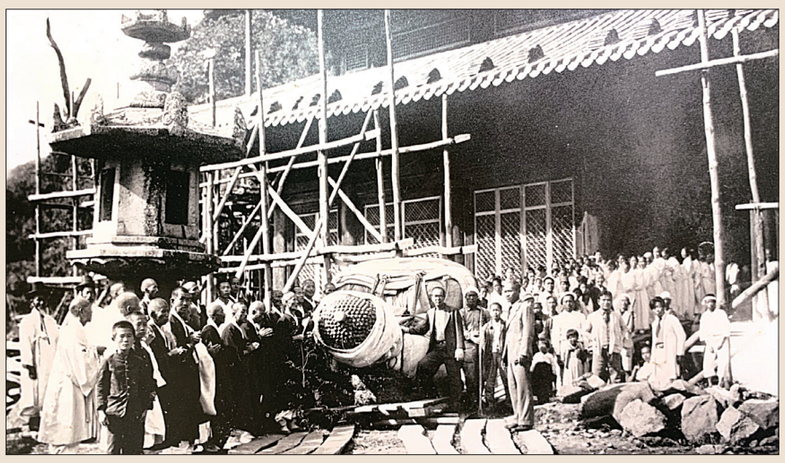


동국대 출판문화원은 최근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를 발간했다.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 지원을 받아 5년간 진행된 '한국의 근대불교문화 사진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의 성과를 망라한 이 책은 4만여 장의 사진 중 209장이 엄선해 수록됐다. 본지는 출판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주요 사진과 내용을 발췌 · 게재한다. 〈편집자 주〉



금강산 장안사 대웅보전

일제강점기 금강산 장안사 대웅보전 앞 기념사진. 사진 속 장안사는 역사적으로 잦은 화재와 복원을 반복하다가 1863년 마지막으로 중수한 것이다. 1933년 편찬된 〈조선가요 가곡집〉에는 이은상이 작사하고 홍난파가 작곡한 '장안사'라는 가곡이 실려있는데, 가사는 그런 장안사의 흥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사찰은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일부 석비만 남기고 전소됐다.



화엄사 불상 이운

화엄사 대웅전의 불상을 각황전으로 모시는 불봉안(佛奉安). 각황전은 대웅전보다도 더 큰 중층 사찰 건물로서 천장이 아주 높아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대웅전에 있던 불상을 옮겨서 각황전 안으로 이운하는 모습이다.



석존강탄제일을 기념하는 승려들

일제강점기 석존강탄제일(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승려의 모습. 〈조선풍속〉이라는 연작 엽서에 실린 사진이다. 사진 속 왼쪽 승려의 의상이나 손에 전통악기인 바라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불교 의식 무용인 바라춤을 추기 위한 복장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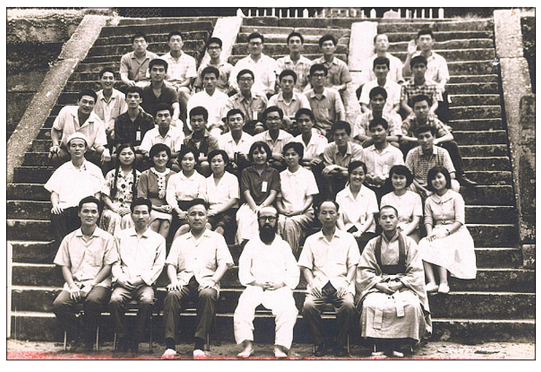
해안 선사의 생전장례식

1961년 해안 선사의 생전장례식. 당시 내소사 인근에서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해안선사는 1971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1917년부터 내소사 주지를 역임했다. 선사는 생전장례식을 치른 13년 후 1974년 입적했다.



법주사 미륵불상 점안식

1964년 법주사 미륵불상 점안식 기념. 점안식은 불상이나 불화와 같은 물질적 신앙 대상을 종교적 성물로 변화시키는 의례다. 사진 인물로는 둘째 줄 왼쪽 8번째가 청담 스님, 9번째가 동산 스님, 12번째가 경산 스님이다.



대불련 제1회 간부수련대회

1966년 화엄사에서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제1회 간부수련대회. 사진 속 인물을 보면 첫째 줄 오른쪽 세 번째가 대불련 지도교수를 담당한 서경수 교수이고, 넷째 줄 오른쪽 첫 번째가 대불련 간부 시절의 김선근 교수다.



안거철 선방의 참선수행

1970년대 안거철 선방의 참선수행. 1960년대와 비교해 보면 선방이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인다. 사진 속 장면은 수행 중 수마(睡魔)에 빠진 스님을 장군죽비로 경책하는 모습이다.

흑백사진으로 만나는 근현대 사찰 · 선지식

동국대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 발간

근대불교사진 아카이브 사업 성과
사진 4만장 수집… 209장 선별해
구한말 사찰 풍경, 北사찰 확인돼
근대 선지식 풍모 찾아볼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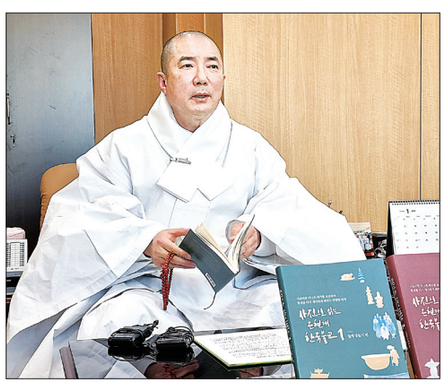
사진은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록물이다. 19세기 이후 역사의 중요한 현장은 사진으로 기록됐고, 이는 근현대시기 한국불교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요한 행사들은 사진으로 기록됐고, 그 기록들은 당시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됐다. 한국불교 사찰과 선지식의 면면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집이 발간됐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국대 출판문화원이 발간한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 지원을 받아 5년 간 진행된 '한국의 근대불교문화사진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의 성과를 망라한 것이다.

황순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총 21명의 연구원이 참여한 '한국의 근대불교문화 사진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는 근현대 신문기사와 전국 방방곡곡 노장 스님들을 찾아뵙고 사진들을 얻으며 인터뷰 했다. 이를 통해 17개 기관 및 개인에게서 4만장의 사진을 수집했다.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는 근대불교의 현장을 시대별로 나눠 1권 일제강점기 편, 2권 1950년대부터 1970년대 편으로 나눠 출간됐다. 1권에는 엽서사진 49장 등 총 84장의 사진이, 2권에 125장의 사진이 수록돼 총 209장의 사진이 담겼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1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권 일제강점기' 편은 먹물 빛깔의 설악산 봉정암 사리탑 모습으로 시작해서 1922년 촬영한 경주 정혜사 13층 석탑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해 보리암, 서울 옥천암, 통영 용화사, 장성 백양사 등 주요 사찰의 전각을 볼 수 있다. 남북 분단 전 북녘 사찰의 사진들도 확인할 수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실제 신계사, 표훈사, 마하연 등 금강산의 고즈넉한 절들을 사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또한, 사찰로 소풍을 와서 술판을 벌이고 있던 일본의 군인들의 사진에서는 당시 한국불교의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권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편은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왜색불교를 청산하면서 사찰들이 제 모습과 역할을 되찾아가던 날들의 사진들이 주요하다. 방금 수계한 스님들의 굳센 표정과 안거와 용맹정진을 마친 스님들의 단체 사진에서 훗날 한국불교계를 이끈 스님들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사진은 찍는 순간에는 '지금'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과거를 보존해 현재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물건"이라며 "자료집의 사진이 대부분이 흑백사진이고, 개인들 품속에서 보관해온 것들이라서 꼬깃꼬깃하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엽서사진들이지만, 그 자체로 평탄하지 않았던 우리의 20세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는 달라진 사찰의 잊혀진 현장이나, 문화재의 이동, 복원과정, 이름없는 스님들의 소박한 생활상까지 담겨 있어, 한국불교 근현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수집된 4만여 장의 근대불교사진들은 향후 작업을 거쳐 오는 3월 중 동국대 불교학술원 근현대불교사진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그동안 불교문화 연구자들은 사진을 불교문화의 한 범주로 중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사진을 통해 근대불교의 역사 속에서 잊혀진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면서 "이 책의 출간으로 귀한 근대불교 사진이 더 발굴돼 세상에 공개되고, 사진을 통한 불교문화 연구를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